

낭만항구 목포, 국제슬로시티 인증 레거

사람과 자연·역사와 예술이 조화로운 새로운 슬로시티 모델 구현

목포시가 국제슬로시티 인증에 성공했다.

목포시는 지난 22일 슬로시티 발상지인 이탈리아 오르비에토에서 개최된 2019 국제슬로시티 총회에서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인증서를 전달받아 국내 16번째, 세계적으로는 253번째 국제슬로시티로 인정받게 됐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목포시가 공동체와 생태환경의 가치 존중, 문화 예술 부흥, 맛의 도시 브랜드화를 통한 독자적 슬로시티푸드 개발 노력 등 전통가치를 계승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는 점이 슬로시티의 철학과 가치에 부합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슬로시티 지정으로 세계적 브랜드인 슬로시티 로고마크를 각종 마케팅과 홍보 활동에 사용



할 수 있어 도시 브랜드까지 향상과 관광객 증가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된다.

목포시는 그동안 일제강점기 근대역사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원도심 지역,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주민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외달도·달리도 등 인근 섬을 슬로시티 핵심 거점지역으로 목포시 전체를 국제슬로시티로 인증받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지난 해 10월 5일 국제슬로시티

연맹에 신규 슬로시티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제조정위원회의 72개 항목 평가보고서 검증, 국제슬로시티연맹의 현장실사 등을 거치며 슬로시티 인증에 실패를 기뻐했다.

특히, 지난 4월 국제슬로시티연맹 평가단 현장 실사 시에는 평가단으로부터 원도심 일대 근대역사문화유산의 가치가 높고, 유달산·외달도·달리도 등 자연경관이 매우 훌륭할 뿐만 아니라, 슬로우 푸드 및 주민공동체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어 다른 슬로시티에서는 볼 수 없는 색다른 매력이 있다고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시는 앞으로 자주적 근대도시의 역사성 뿐만 아니라 예향과 남도 맛의 본거지,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섬의 매력과 강점 등을 부각시켜 이전의 다른 슬로시티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가장 한국적인 목포만의 새로운 슬로시티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제품 선정

7개업체 38개 제품

신안군은 지난 20일 2019년도 상반기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 7개업체 38개 제품에 대하여 신안군수 품질보증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신안 다도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농수특산물 품질 보증은 먼저 농수산물 각 실무위원회에서 농가, 법인, 작목반 등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현지 실사를 하고 1차

실무 위원회를 거쳐 군품질보증 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엄선된 제품에 대하여 신안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상반기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제품으로는 전국 생산량 70%를 차지하고 있는 신안 새우젓 등 젓갈류와 생선 건장, 기능성 천연염 가공제품 등 다양한 수산물 제품과 자색양파, 무화과, 버섯 등 청정 지역에서 생산되어 명성을 얻고 있는 농산물이 함께 선정 되었다.

완도군, 여름철 재난 대비 간담회 개최

완도군은 지난 21일, 여름철 자연재난 및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완도군 재난안전대책 13개 협업 부서와 읍·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름철 재난 발생에 따른 13개 협업 부서별 임무와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비상 단계별 실무반 편성 및 근

무원칙, 피해 조사 실시 등 행동요령과 안내서에 따른 현장 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군은 여름철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응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진도군, 전국 SNS 서포터즈 초청 팸투어

유명 블로거 등 21명 방문...우수 문화예술·관광 상품 홍보

진도군이 1박2일 동안 유명 SNS 서포터즈를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했다.

군은 진도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관광상품 개발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전국 각지의 유명 블로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서포터즈 21명을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초청했다.

팸투어는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 공원과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진도토요민속여행, 정전미술관, 진도민속문화예술단 전수관, 윤림산방, 진도타워 등 진도의 우수한 문

화예술과 관광 상품을 홍보했다. 특히 진도읍의 이간 불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지난 5월 3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음악분수와 미디어파사드에 큰 호응을 얻었다.

진도군 기획예산과 홍보담당 관계자는 "전국 각지의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SNS 서포터즈 팸투어를 통해 매력적인 진도의 모습을 널리 알리고 방문하고 싶은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황토골 무안 요리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내달 1일까지 접수

무안군은 2019년 무안연꽃축제 기간 중 7월 27일 개최하는 '제13회 황토골 무안 요리경연대회' 참가자를 7월 1일까지 모집한다.

'황토골 무안 식도락 여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무안특산물 연, 양파, 고구마, 낙지, 방호박을 이용한 요리경연으로 1차 서류심사(7월 5일)를 통과한 참가자 대상으로 7월 27일 진행된다.

올해 공모내용은 지역 농특산품을 주제로 한 관광음식으로써 가능성 있는 향토 외식메뉴 1종과 간식메뉴 1종이며, 출품작에 대한 시상은 대상 1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최우수상 2팀은 전남도지사상, 그리고 우수상 4팀과 장려상 13팀에게는 무안군수상이 주어진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요리대회를 통해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음식관광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대표음식을 발굴·개발하며 방문객에게 눈으로 보고 입

으로 맛보는 즐거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 '참가자 모집을 진행하면서 이미 경연대회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예비 참가자들에게 남은 모집기간 동안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청접수는 무안군 홈페이지 <http://www.muangok.kr> 고시공고에서 대회요강을 확인하고 참가서식을 다운로드하신 후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450-4053) 방문 및 메일(yang88723@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암군,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자살예방사업 업무협약



영암군은 지난 19일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독거노인 우울증 스크리닝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업무협약을 영암지역자활센터와 체결하였다.

영암지역자활센터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단체 구성원 전체가 치매극복선도교육에 참여하게 되어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되었으며, 중앙치매센터로부터 인증 번호를 부여 받아 현관식도 개최하였다.

또한, 독거노인이 치매조기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관리사가 안내하면서 치매 의심자 발견 시 치매안심센터에 대상자 상황 공유 및 의뢰로 진단검사 등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살예방사업은 자살 고위험군인 독거노인 자살 예방을 위해 생활관리사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에게 노인우울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 중증우울인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여 정신건강상담 및 전문치료 연계 등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노인인구 고령화 증가 추세로 치매 발생을 및 자살률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독거노인의 치매, 자살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